

서안나 Seo Anna (b.1987)

개인전

2023 클립, 서울

2022 텅, 비어있는 삶, 서울

2022 YK Presents, 서울

단체전

2024 아르떼케이, 서울

2023 한평갤러리, 서울

2023 히피한남, 서울

2022 빈칸, 서울

2019 Bruxelles Art Fair, 브뤼셀

2019 Van Gogh Art Gallery, 마드리드



'함께 살고 있는 감자(강아지)와 우리(고양이),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들은 일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며 위로가 되어주는 동반자들이다.

그들과의 평범한 일상과 공간을 위트 있고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그들과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음식을 탐내는 강아지나 문을 여는 법을 아는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일 때의 일상들을 물감을 얇게 여러 번 올려 특유의 질감과 색으로 따뜻한 정서로 표현했다.'

- 서안나

키츠 Kits (b.1990)

학력

2015 성균관대학교 시각디자인학 및
프랑스어문학 학사 졸업

개인전

2023 tya 갤러리, 서울

단체전

2024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아르떼케이, 서울

2023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아트갤러리, 서울

2020 CITYSCAPE 2020, CICA MUSEUM, 김포



“힘을 풀고 부드럽이 깊어져, 마치 물처럼 깊이 흐르고 흘러 각자가 지닌 고유한 알맹이에 닿고자 한다. 이러한 여정을 복돋는 힘은 변해가야만 하는 주위의 풍경들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온다. 이를 말랑한 형태, 나아가 몽글몽글한 경계, 포슬포슬한 텍스처, 온화하고도 오묘한 색채들로 표현하며, 고유한 지점으로 흘러갈수록 기꺼이 떨어내어질 것이다.

그저 일상 속 잠시나마 멈추고 싶은 순간들을 이러한 표현에 투영한다.

지켜보는 이들도 함께 각자만의 고유한 알맹이를 비추어 보기도, 매 순간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

- 키츠